

스승의 주입을 생각하며

신세대 선생님의 반성

이수경 (69동기)



우리 만남

김두영 (70동기)

주 간충현 젊은이의 페이지에 나올 글을 한 번 써보라는 청년부 동기의 제안을 받아들인 후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글재주 하고는 거리가 먼 저로서는 무엇을 써야 할 것인지를 많이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저와 제 배우자가 될 자매의 만남과 현재까지의 일들이 주님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고자. 주님께 누가 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으며,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와 재대는 1995년 3월 말, 한 후배의 소개로 만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 박사과정 신입생이었고 결혼이나 배우자를 생각하지 않은 아직 마흔이 어렸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대학교 졸업을 앞두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6개월의 학과 6개월의 준비 기간을 거쳐 95년 3월 새해를 만나는 새신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섬기고 즐거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막연한 생각과 기미 이외에는 주님께 대는 배우자나 대를 뚜렷한 기대 목표를 가지고 있지도 못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런 마음의 준비도 없이 그냥 예전의 같았지만 새롭게 나갔습니다.

그러나 자매와의 첫 만남은 세계 기쁨을 주었고, 다음 만남에 대한 설렘을 갖게 하였습
다. 당시 자매는 사회 초년생으로 직장생활로 인해 무척 고된 생활이었고, 저도 공대 박사과
정이라는 급적적인 생활과는 거리가 먼 처지였기 때문에, 이후의 만남은 많은 경우 일주일
에 한 번 회피에서 이해를 함께 드리는 것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이 지속되어감
에 따라 서로에 대한 애매와 사랑이 커져 갔습나다.

제 잘못과 어리석음, 이런 나의 상태 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들의 만민에서 생기는 갈등 등으로 어려움은 있었으나 자매의 인내와 이해로 극복하였습니다. 특히 주님의 말씀을 통해 제게 참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하였고, 마음의 평안과 힘을 주셨습니다. 또한 한식기엔 근무처와 신실기에 있는 경우가 많아서 제들의 방목으로 대화할수없었습니다. 또 기도 제복을 나눔 시길 1부족했던 제치들은 그때의 전으로 9월을 기도 시간으로 정해 놓고 기도하에 있되 이듬해 2시간이변 같이 저희의 만물을 감사드리고 서를 위해 기도하에 드리기를 시작했고,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와 남반은 계속되어 서로가 하나님께 예미신 만민이라는 확신에 이르게 되었고, 단순히 예배만을 드리는 신앙생활을 넘어 하나님 뜻을 더 깊이 알고자 작년 11월 말제 첫친부님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허락할을 확신하고 깊이 감사드리고 일제를 정하여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자매와의 만남을 통하여 오래 참음과 겸손, 은유함의 중요함과, 저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과 가까워짐으로써 저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인 자매와의 관계를 더욱 굳고 친하게 되었고 화평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감당하게 함으로써 기도하게 하시고 언단과 말씀을 배우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저와 같이 살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 더욱 더 가까워지기를 원하며 글을 맺습니다.

나는 2년간 중등3부 교사로 있었다. 10년도 넘게 그 자리를 지켜 온 많은 선배 선생님들 앞에 이런 말은 건방질지도 모르지만 그 2년간 여러모로 힘이 들었다. 아이들에게 좋은 선생님, 아니 좋은 친구가 되어야지 라고 결심을 하며 처음 교사로 나온. 그런 공부를 준비하며 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쉬운 더 좋은 예는 없을까? 어떻게 하면 아직도 믿음의 확신이 없는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할까 저 아이들이 내게 마음을 열지 않는 걸까? 어떻게 행동하는 저 아이의 문제는 뭘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많은 부분들에서 오히려 내가 상심하고 고민했다.

한주일 내내 공부하고 준비해온 성경공부는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느라 풀어놓지도 못하고 그냥 끝나버리곤 했다. 예배 시간에 할 이야기도 많고 웃기도 하는 아이들이 성경공부 시간에 정말 꿀 먹은 벙어리처럼 앉아만 있는 것이 답답했다.

애들아, 너희 신세대라고 하잖아. 왜 성경에 대해서만 침묵을 지키고 있는 거니?

아이들의 고민 얘기를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고 싶었지만 아이들은 자기들끼리만 속닥거릴 뿐 선생님과 나와 함께 있는 걸 불편해 했다. 친한 척 전화를 해도 전화선 저쪽에선 냉랭한 반응뿐. 아니요, 예의 연속이었다. 점점 자신이 없었다. 아이들을 위한 기도도 점점 소홀하게 되고 사랑하는 감정보다는 낯익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

어릴 적 난 안 그랬던 것 같은데, 난 착한(?) 학생이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갑자기 내가 울린(?) 선생님이 생각났다. 수련회였던 것 같다. 무언가 잘못된 일로 꾸중을 듣고 있던 내가 선생님이 별 잘못했다고 대들며 반항하던 기억이. 나도 그랬구나. 그리고 보니까 예배 시간에 수도로 떠돌아서 걸렸었고 성경공부 시간에 친구랑 수다떠느라 정신 없었고 질문하면 목목부부하고 나도 보니까 나도.

이만큼 내가 클 수 있었고 다시 가르칠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 나 혼자 그냥 큰 것이 아니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믿음의 확신이 서기까지. 보이게, 보이지 않게 많은 사랑을 해 주신 나의 선생님들. 그때 그 선생님들에게 당연하게 생각되었던 많은 것들이 당연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되었다.

매주 일정한 시간을 우리와 함께 하였고, 철마다 좋은 것으로 대어가 맛있는 음식을 사 주시고, 기도원 그 마루바닥에서 눈물을 흘리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두 점성대 한 두 열서를 보내시고, 동맹나라에서 전화를 기꺼이 받아 주시고, 예쁜 꽃을 흘려보내고 길로도 심장을 오서한 것조차 해 주시고, 성령 속에 많은 인물을 소개해 주신 선생님들이 그 따뜻한게 보여지던 섬김의 모습들, 아. 나의 선생님들 참 감사합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내게 지식을 주었다면 교회학교 나의 선생님들은 내게 영혼의 생명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셨다. 학교 선생님만큼 대접하지도 않았던 나의 이 소울들. 일주일만 하루 몇 십분 동안이던 생명의 따뜻한 손이 이렇게 컸다.

선생님들 덕분에 나의 유년기가 아름다웠음을 말할 것도 없겠지. 교회를 오가며 그 선생님들을 만날 때 이제는 어른 대접을 해 주시며 배가 이만큼 컸구나 대견해 하신다. 나도 그렇게 될까? 지금은 말쑥하기처럼 보이는 저 아이들이 어느 날 훌쩍 커 버리고 그들을 보며 호호대 할까? 하나니, 참 갑사합니다. 제게 좋은 선생님들 주셔서 길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래 참게 하고요 오래 사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귀한 선생님들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도 그런 선생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처럼 끝까지 사랑하며 이인 얻으실수록 위대하신 분이시니 그분이 되도록 도와주세요.

성찬식 풍경

김정민(70동기)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엄숙함이 장내를 감싼다. 나는 사뭇 경건한 자세로 눈을 내리깔고 조용히 순서를 따라 움직인다. 그때 옆에 앉아 있던 후배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언니, 저 그릇들 다 순금이야?”
“돈이 얼마네, 쓸데없이 그릇에 낭비하냐?”라
고 대답했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
았다.
‘그릇이 화려하다...’

II
앞줄에 앉은 사람들이 새신자 같다. 보라색으
로 염색한 머리, 금발로 염색한 머리, 구멍을 두
개나 뚫어 링을 찬 거, 묵직한 은목걸이 ...
화려한 의모를 자랑하는 개성이 강한 형제들
이 앉아 있다. 이들은 낯선 의식이 지루한가 보
다. 계속 노트에 무언가를 쓰기도 하고 귀를 후
비거나 하면 기지개를 친다.

III
눈물이 난다. 왜 날 사랑했을까. 그리고 죽
으셨을까. 그 사랑의 깊이를 생각할수록 눈물이
난다. 그동안의 생활들이 마음을 스친다. 외롭
고 고독했던 그 시간들. 누군가를 향하여 마음
으로 온 마음을 가득 매었던 시간들. 신은 없다
고 부정한들 순간. 그래도 항상 내 곁에 계셨던
그분... 눈물 속 세상은 파스칼이 흐른다.

스승의주일에 만난 성도



지난 3월에 군에 간 나훔이, 한동대 2년에 다니는 헤안이, 그리고 막 내아들 삼급이(고3) 삼형제를 둔 소년(2). 도주지 군에 간 아들을 둔 아빠로 생각되지 않는 이철호 집사의 늙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 다른 부서에는 전혀 마음이 풀리지 않고, 오직 유·초등부에서만 지내고 싶어 20년을 지켜온 것이 큰 비결일지 모른다. 그의 주일생활은 94년도부터 4년간 새가족위원의 일꾼으로 잠시 자리를 비운 때고는 1975년부터 지금(초등부 부감)까지 꼬박 유·초등부의 생활로 채워져 있다.

▶ 어린이부터 교사로 봉사하시게 된

유·초등부에서만 20년간 교사로 섬기는 이철호 집사 “하나님의 은혜로 꾸준히 자리를 지켰을 뿐입니다”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이 집사: 1973년도에 처음 우리 교회에 와서 청년부에 출석하게 주세요. 그리고 다음해에 세례를 받았지요. 그때 지금은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정상우 목사님께서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하라고 권면 하셨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지요.

▶ 지금까지 유·초등부 교사로 오랜 시간 봉사해 오시면서 가장 인상에 남았던 아이들이 있었습니까?

이 집사: 1975년 유년부 2학년 12반! 그곳이 교회학교 봉사생활의 고향입니다. 그 때 우리반이었던 친구 중 정광택 형제가 있습니다. 정운석 장로님의 아들인데, 벌써 32살을 되었을 겁니다. 현재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후 만난 한 여자아이가 있어요.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뽕그랗고 해서 아주 인상적인 친구였는데, 똑똑하고 열심이 특성했던 친구지요. 그 친구가 바로 지금 청년부 한찬대를 지휘하는 미리 양이예요. 또 나를 처음 본 후 남자선생님

은 싫다고 하면서 얼마 앞에서 울며 배를 쓰다가 나중에 저와 친하게 잘 지낸 친구도 있었어요. 지금 대학교 3학년에서 다니는 함희정 양이예요.

▶ 해가 바뀌면서 아이들의 변화는 모습도 느껴시겠는데요?

이 집사: 예전의 아이들과 요즘은 아이들을 볼 때, 신앙적으로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생활습관이나 성격적에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핵가족 영향인가봐요. 그리고 요즘에는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모두다 너무 바빠서 삼박을 제대로 하기 어려운 것이 큰 변화이기도 합니다.

▶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시면서 나름대로 신조가 있으신대 어떤 것인가요?

이 집사: 특별히 이렇게 해야겠다는 개인적인 고집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다만 그때 그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부사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 따서 순종하면서 꾸준히 하는 것 뿐입니다. 그렇게 봉사할 수 있도록 건

강과 환경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릴 뿐입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 비라고 싶은 면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 집사: 다른 선생님들도 공감하시는 부분인데요. 초창기와는 달리 요즘에는 우리 교회 교회학교가 다른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점들을 잘 발전시켜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학교 교육에 대한 좀더 많은 관심과 투자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교사층이 좀더 젊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공간 부족의 문제는 오랫동안 계속되어온 고질적인 문제지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선생님들이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들을 잘 키워 준다면, 아이들이 계속 교회에 남아 대를 이어서 이교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대를 잇는 신앙’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 감사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최 계순(집사, 16교구)

지 금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하는 데에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다. 여러 사람을 동원하시니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었다.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기에 감사함으로 이 글을 쓴다.

92년 당시의 형편은 참으로 어려웠다. 아파트로의 입주 예정이 10일이었지만 12월까지도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도저히 일천만원을 준비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현실적으로 별다른 길이 없어 무작정 중환기도원으로 올라가 주님게만 매달렸다. “살려 주세요요, 주님, 도저히 마련할 길이 없습니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중학교 3년, 초등학교 6년, 3년의 세 자녀의 학교가 문제였다. 전학 하겠다고 학교에 연락한 상태라 학교측의 제책이 한대도 주지않았다. 자칫하면 학교측에 입학해야 할 아들이 공중에 뜬 상태였고, 고등학교에 입학해야 할 딸도 어려운 궁지에 몰리게 될 처지가 되었다. 때는 12월이었고, 서울에서 경기도로 전학하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운 교육상의 문제점들이 있었다. 중학교에 예정반이아 할 아들이 전학하지 못하면 학교 배정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제는 더욱더 무거워져만 갔다.

빌려 쓸 곳도, 또 용기도 없는 무능력한 한심한 사람이었다. “주님, 어찌하시렵니까? 주님 영광을 위하여 되었습니다. 지혜없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당신

이 주신 선물들을, 이 자녀들을 보시옵소서.”

“따르릉” “네, 왜 요즘 전파 안받니? 며칠째 전파 안받길래 이시간 줄 앉았잖아!” 친구의 목소리였다. “오용, 나 기도하고 있었어.” “너말야 내가 돈빌려 주면 꼭 쓸 수 있어?” “남의 돈을 빌려 썼으면 당연히 돌려줘야지 그런 당연한 일이지않아?” “실은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돈 빌려줬다가 못받은 적이 있었는데...” “그래? 나는 너한테서 빌리게 되면 그 시간부터 기도할꺼야 약속을 꼭 지키길 수 있게 해달라구 말야. 한 달 전에만 돌려줬다고 미리 말했어!” 친구는 통장에 돈을 입금시켰고, 나는 무사히 입주하였다. 92년 12월 6일에.

입주 후 한권으로는 감사하는 마음이었으나 한편으로는 목격해없는 마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이러한 내 마음을 달래 주지않았다 하는 듯, 그날은 소나기가 억수같이 내렸다.

아침 한 끼를 급식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친구의 말을 들으셨지요. 저는 하나님의 성도랍니다.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당신의 영광과 당신의 이름 때문에 더욱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주님 때문이요. 주님 친구의 약속을 아시지요?”

몇 달이 지났을까 돌려줘야 할 때가 온 것이었다. 하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 앞이 캄캄했다. 그런데 그때, 집 앞에 캄캄가 떨어지 있었다. 은행 개장 광고였다. 반개처럼 스티치는 생기기, 그

래 돈은 은행에 있고 결재는 하나님께 하신다고 했지, 씩씩하게 모두도 당당하게 정말 주지않아. 책상에서 은행문을 열었다. 공손히 인사하는 직원에게 ‘대금 담당자 좀 만나봐요’ “네, 제가 대출담당입니다.” 하나님의 성별된 자녀가, 성도인 내가 줄 알고 돈 앞에서 공손히 기다리고 있었다. 책상에 마주 앉아 왜 돈이 필요한지에 대해 설명했다. 친구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이야기기도 빼지 않았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으니 열심히 벌어서 갚았으니 빌려 주십시오.” “보통 서 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천척이라도 있지 않으신가요?” “가진 것이 없으니 저지는 천척만 떼 부탁할 수 없습니다.” “오백만원 이 상은 본전에 결제가 있어야 해 안 되겠군요.” 하며 고개를 슬레슬레 흔들었다. 당면했다. 그러나 물러서지 않고 직접장을 뒤흔들고 있었다. 서로 만장일치로로는 할 수 없는 역지였다. 어찌 은행에 가서 이럴 수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대리는 나를 쳐다보고, 나도 그를 쳐다 봤다. 그의 입에 서 터져 나가는 말은 “저는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님으로 빌릴 수는 없을까요?” 그는 무엇이라 서서에 기록하고 있었고 얼굴엔 미소가 서려 있었다. 그의 웃음은 나를 편안하게 해 주었다. “살릴 수에 연락드릴 테이니 기다려주세요.” “아닙니다. 제가 아쉬운 사람이니 날마다 오십시오.” “크구 만났습니다.” “살릴 후 오후 3시까지 전화드릴 것입니다.”

살릴 동안 조건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파다우요, 일곱백팔 무지개 푸른 하늘 저편에 곱게 비치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노아 할 아버지 배를 만들고 세상 사람들 바쳐 주었다. 죄를 뉘우치고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았.” 찬송하면서 살임을 기다렸다. “따르릉, 여보세요?” “네, 은혜입니다. 돈 가져 가지요.” “네, 돈요?” “저가 저지라는 전화가 드리어 의심스러웠다. “조건은요?” “그냥 오셔서 싸인만 하십시오.” 주님, 감사드려요, 영광받으세요, 나의 형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의심만 전신만으로 은행에 갔다. 그분은 웃었고, 통장을 내 손에 건네 주며 “친구와의 약속을 이제 지키길 수 있게 되었지요?” 꼭이나 부르면은 눈물이었지만 부끄러웠다. 차마 그 날 받아 가지고 나올 수가 없었다. “저, 저가 저지라는 전화가 드려졌습니까. 삼 년에 오백만원원리까지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치를 지으신 여호와께 감사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귀히 대접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신실하신 당신의 성도에게 주님의 이름 높이기 소원합니다. 은행의 높은 문턱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낮아졌나이다. 미련하고 아둔한 나의 기도를 담사하시 마십시오. 감사를 받으며 이웃 사랑처럼 보호하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성령에 찬양 올립니다.

“오직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나무나 같을이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영히 의지하리이다.” (시 52:8)

지체된 소식

영아부

가정의 달을 맞아 부모님과 아기들에게 유익한 시간을 마련하여, 지난 주일 집회 시간에 초청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성경적 자녀 교육'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참다운 교육은 가정에서 시작되며, 가정에서의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해서 부모가 먼저 변화해야 하며, 자녀가 나의 것이라기보다 예수님을 버리고 두렵고 혼란과 혼란에 양육해야 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다. 특히 가정예배를 통해 자녀의 신앙과 인격을 지도해 나가기로 다짐하기도 했다. (송재경 통신원)

유년부

스승의 주일을 맞아 유년부에서는 깊은 감사와 새로운 각오가 서로 교차하는 기쁨을 맛보고 있어. 오늘을 3과를 소개해 드리지요. 화평의 마음으로 이웃을 원하게 하는 양상남 과장님을 신수로 평가하고 젊은 신생남이 3과를 이루고 있네요. 유복의 선생님은 기타 실력이 수준급!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잘하시지요. 송정순 선생님은 유유했던 성품의 소유자로 확실히 가정을 꾸리고 계시지요. 이비와 선생님은 충현교회에서 성경읽기와 양송 1등을 달리며 찬양을 잘하시는 실력파 시지요. 정경진 선생님은 가르치는 은사, 찬양의 은사, 섬기는 은사, 사랑의 은사를 두루 가지셨네요. 이희자 선생님은 가족들과 책임감의 본을 보이며 지혜로운 교사로 열심히 계시지요. 김정현 선생님도 어린이들을 위해 가르치는 은사와 사랑의 은사가 많기는 막강하게 백중지대합니다. 끝으로 유복성 선생님은 꼼꼼하고 책임감이 강하면서 소심, 맹시, 판단력이 뛰어난 주님의 일꾼이세요. 다른 과와는 달리, 유유했한 우연과 파란의 세심함과 아가자기라, 그리고 뜨거운 신앙심이 3과의 자랑거리이

서 동시에 살아 있는 스승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강현주 통신원)

중동1부

학생들의 섬김과 봉사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매주 아침 9시에 단원대원들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들은 30분 정도의 기도를 갖고 가사와 학교, 교회와 예배, 그리고 여러쪽을 담고 있는 이웃을 위해 도전과 기도하고 있다. 찬양대원들은 오전과 오후에 실시되는 찬양 연습을 빠짐없이 참석하여 예배 때마다 영감을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으며, 기차단원선 친구들이 정성껏 해오는 성경퀴즈를 점검, 기록하며 선생님들을 찾아와 인터뷰를 하기도 한다. 글썽하게 뛰어난 친구, 그림 솜씨가 뛰어난 친구들이 만들어 내는 실로암지는 중동1부의 자랑거리이다. 각자의 달란트를 가지고 힘써 봉사는 중동1부 친구들을 공통된 서로 돕기 존경하는 아름다운 보람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중동1부 화이팅! (송선아 통신원)

중동2부

지난 주일 교사실에서 아름다운 만남이 있었다. 그동안 기도했던 조경화 친구의 아비님이신 조경화 집사님과 교사들과의 만남이었다. "주께서 치료해서 주셔서 기적적으로 회복되어 뒤흔들었다" 하는 말을 받아 기쁨이 되신 집사님께서는 아비에게 병원 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하여 저희 가족이 매일 3시간씩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계속 3과도 도와주세요." 집사님의 맑고 깨끗한 눈에서 쏟아지는 그 수한 이야기 때문에 차를 놓을 말을 수가 없었다. "집사님, 너무 어렵게요. 이 자리에 서기까지 속이 다고 믿음이 타던 일이 어디 한두 번이던가요. 이렇게 위로해 드리면 좋나를가? 아니면..." 이리저리 생각해 보아도 기도밖에는 달리 길이 없었다. 목사님도

함께 통성으로 묶어서 올려지는 기도속에는 주님의 긴 옷자락이 우리를 감싸 안고 있었다. "정확히 사랑한다" 하시는 세미한 음성과 함께, (나성애 통신원)

고동부

고동부 교사들은 4일과 5일의 영성훈련 및 세미나를 통해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았다. 4일 밤 10시에 찬송과 말씀으로부터 영성훈련은 시작되었다. 조은찬 목사님의 인도로 세속직과 애잔함이 이루어졌는데, 교사들은 서로의 발을 씻기며, 남을 섬기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로 다짐했고, 동료 교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5일 아침 7시, 충현통신을 달리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한 후 정오까지 세미나를 진행했다. 학년별로 교사의 역할에 대해 주제 발표를 했는데, 앞으로의 교사생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그 외에도 공동체 훈련, 기도회 등의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틀간의 영성훈련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성도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 (이현경 통신원)

청년2부

5월 21일(목, 저녁 7시 30분)을 서운역 충현전 전도의 날로 정하고 선교부를 중심으로 기도회 준비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 IMF의 한파로 서운역 근처에 모이는 많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실시할 예정이다. 교회내 30대들의 많은 기도과 동참이 요청된다. (백명자 통신원)

11교구

오전과 24일 찬송가부르시게회를 실시한다. 찬송가 494장(나 죄중에 해매)을 지정곡으로 하여 가족별, 지역별, 전도회별 대항으로 진행될 이 대회는 교구 식구들의 단합과 친교를 다지는

좋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교구

해마다 어린이날이면 두디야·마리안전도회에서선 신촌세브란스병원 어린이찬양대를 찾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다. 특히 금년에는 예쁜 풍선도 장사를 만들어 쓰고 다니면서 300여명의 병상의 어린이들에게 예쁜 가방에 충현교회 마크를 붙인 뱀이과과자 등을 넣어 나누어 주었는데 보 호자들이 어린이들보다 더 기뻐하면서 감사해 하셨다. 일 년에 한 번이지만 전도에 많은 도움이 된다며 내년도에 꼭 만나기를 바란다는 그곳 원목과 전도사님들의 말을 뒤로 하고 병원을 나왔다. 또한 첫째 두일 교구모임에는 12교구 어린이들의 특송이 있었고 교구에서는 예쁜 공을 상송하는 색종이와 과자를 넣은 선물을 전했으며, 어버이주일에 70세 이상의 어르신들 20여명도 정성스럽게 마련한 선물을 전달하며 부모님 은혜에 감사하는 특별 순서도 가졌다. (박철구 통신원)

15교구

살아오신 삶의 모양이나 절처럼 다양한 교도의 풍선이 바다나리 강대상을 수놓아 어버이주일에 한층 중요한 마음을 갖게 한 10일 15교구 모임시간 경로위회회. 흰 머리에 정갈하게 차려 입은 옷 위로 빨간 카네이션의 색깔이 사랑의 위로를 나타내는 듯 가슴에 달려 있는 우리의 어머니를, 살뜰한관리의 찬송이 이루어 주신 중증과 함께 교구 식구들이 다같이 일어서서 우리 어머니들을 향해 절을 올렸다. 특별순서 재봉동이의 준비는 아바의 품에서 잠이 들어 모든 교구 식구들이 찬송으로 대신하고 이어 부모님에 헌상하고 감사하시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숙영 통신원)

탐방 - 오산나찬양대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인들 - 호산나찬양대

예수님을 사랑하던 여인들이 있었다. 생전의 예수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은 물론 예수님 사후에도 예비된 향품과 향유를 가지고 새벽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던 여인들이 바로 그들이다. 충현교회에도 그런 여인들이 부러가 있다. 이 아름다운 여인들을 보면 그 옛날 정성으로 예수님을 따르던 유기는 여인들이 생각난다. 이런 여인들이 찬양이라는 공동체로 집합을 이룬 곳이 '호산나찬양대'이다.

호산나찬양대는 지금으로부터 32년 전, 1966년에 발족했다. 찬양대가 없었던 우리 교회에 처음으로 청년찬양대와 여성찬양대라는 두 개의 찬양대가 조직되었는데 그 중 하나인 여성찬양대가 오늘날 호산나찬양대의 전신이다. 처음에 스무 사람 정도로 시작되었던 이 지금은 대원 130명으로 늘어난 자랑스런 찬양대가 되었고 수요일예배를 수종종 하고 있다.

호산나찬양대는 이승순 지휘자를 비롯하여 제11대 대장인 박수자 권사님이 찬양대를 총괄하고 양승순, 임영자 두 분의 권사님이 부대장으로 찬양대의 이모저모를 살피시는 20명의 임원이 찬양대의 발전을 위해 온 정성을 다 쏟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의 임원회,

회원들의 엄격한 출결 관리, 파트별 단합대회, 전대원이 참석한 오디션 등으로 더 나은 찬양대를 위하여 조직력을 강화해 가는 중이다.

이 찬양대는 여성들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다른 혼성 찬양대와는 다른 특성이 있다. 구성원의 연령이 다양하여 서로서로 모너처럼, 시누이올케처럼, 언니동생처럼, 이모질녀처럼, 고부처럼, 친구처럼 지내고 있다. 그러나 흠허함이 없이 지내는 편안함도 있지만 품위있는 위계질도가 확립되어 있어 섬김과 보살핌이 조화된 공동체이다.

이 찬양대는 주마다 찬양대 문이 열려 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 이승순 지휘자가 요구하는 단원의 조건은 매우 엄격하다. 찬양을 잘하고 못하고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보다는 100% 충성을 갖고있는 사람에 더 귀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절대적인 겸손한 마음을 강조한다. 선 줄로 앞 매는데 앞줄가 잡으시라는 말씀을 받아 겸손한 마음으로 찬양할 때만 그 영의 찬양대가 생김이 열날다 신다는 것을 알고 때문이다. 그래서 호산나찬양대는 준비 또 준비에 여념이 없다. 자신을 믿는 교단은 힘들다. 주일 오후의 연습과 수요일예배 전과 후



의 연습에 80% 이상의 대원이 참여하여 연습한다. 더욱이 최근에는 호산나찬양대가 주관하는 매강간사절 특별 찬양을 위해 찬양을 홀리고 있다. 지휘자는 힘든다는 말이 나올 것 같으면 그 말을 들은 감사찬양대는 말로 바꾼다고 한다. 단원들 중에는 수요찬양을 드리기 위해 일주일을 보내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찬양의 가사를 성경과와 화상실에 붙여 놓고 암송하며 연습한다. 이렇게 정성을 기울일 때 하나같이 힘을 공급하고 그 힘으로 찬양을 해야 은혜로운 찬양이 된다는 생각에 가진다. 그런데 호산나찬양대는 그들만이 가진 아름다움도 별미가 있다. 그것은 119찬양대이다. 이 말은 찬양으로 불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119 소방대 같은 신속함과 보 주는 찬양대라는 뜻의 애칭이다. 이 말을 풀이

하면 "부르던 달려 가요"이다. 언제, 어디서나 부르던 달려 간다. 장래식, 결혼식, 군부대의 진중 세례식, 가릴불 점등식 등 모든 것은 이데드지 가서 찬양한다. 음악의 3요소와 멜로디, 리듬, 화음이라는 멜로디에는 멜로디를, 리듬에는 리듬을, 화음에는 감격을 실어 하나씩 깨어나들다.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상은 때때로 여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여인들을 서럽게 하는 일이 있다. 그러나 하나뿐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이 여인들만의 찬양을 금세 접해 받으신 흠향찬양이다. 무덤에까지 예수님을 찾아 갔던 여인들처럼 예수님에 대한 호산나찬양대의 사랑과 찬양도 영원히 하리라.

(글/정영희 기자, 사진/이윤구 기자)

교 회 소 식

◆ 알림

- 제2차 학습 및 세례식 / 오는 찬양예배시 본당에서 실시한다. 해당되시는 분은 16:40까지 본당인 앞쪽 정교회에서 만나주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식은 오는 15:00 갈릴릴에서 실시한다.
- ◆ 오 밍
1. 정로 호세백기교회 / 19일(화)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2. 찬양위원의 월례회 / 오는 찬양예배 후, 찬양위원회의실
3. 교육위원의 월례회 / 오는 15:30, 주세회의실
4. 실업인전도회 / 구전도회 - 교정전도회 주일기도회 / 매주일 15:30, 사랑부실
5. 실업인전도회 목요기도회 / 21일(목) 새벽기도 후, 실업인전도회의실
6. 3교구 협의회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4호
7. 12교구 협의회 / 21일(목) 19:00, 탄원실
8. 교육총련원 월례회 / 22일(금) 18:00, 교육관
9. 안수집사의 부부찬양연습 / 오는 15:30, 교육관 212호
10. 안수집사의 구교모임도 / 21일(목) 새벽기도회 후, 교육관 109호
11. 안수집사의 부부기도회 / 22일(금) 금요기도회 후, 충현기도원
12. 권사회 제3회 월례회 / 20일(수) 1부 예배 후, 사랑부실

◆ 남년전도회

1. 바. 물 4 / 오는 15:00, 교육관 202호
2. 바. 물 5 / 오는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3. 바. 물12 / 24일(다름 주일) 구교모임 후, 교육관 212호
4. 바. 물13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0호
5. 바. 물16 / 오는 구교모임 후, 임야부실
6. 베드로 2 / 23일(토) 19:00, 송대배 집사대(양구정동 한양A 71-305, ☎ 540-7260)
7. 베드로 3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4호
8. 베드로 5 / 22일(금) 23:00-01:30, 충현기도원
9. 베드로 6 / 19일(목) 19:30, 김점주 집사대(장성동 우성A 18-705, ☎ 421-9939)
10. 베드로 10 / 23일(토) 19:00, 김점주 옥돌집
11. 베드로11 / 오는 IV부제 후, 영야부실
12. 베드로12 / 오는 15:00, 교육관 412호
13. 베드로15 / 23일(토) 18:30, 김점주 집사대(맛자당, 596-8763)
14. 베드로16 / 오는 구교모임 후, 구교모임장
15. 오. 한13 / 오는 14:00, 갈릴릴
16. 오. 한14 / 24일(다름 주일) 19:00, 원성주 집사대(882-6332)
17. 오. 한17 / 18일(월) 19:00, 유지철 성도대(0342-717-1462)
18. 한. 나 5 / 19일(목) 11:00, 선동경 성도대(예포소 앞)
19. 한. 나13 / 오는 구교모임 후, 사랑부실
20. 예디나 2 / 오는 구교모임 후, 아람을
21. 예디나 3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4호
22. 예디나 5 / 오는 구교모임 후, 복지관 지하2층

23. 예디나 7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205호
24. 예디나 9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414호
25. 예디나10 / 21일(목) 11:00, 삼산산 기도원(연연인교 앞)
26. 예디나11 / 21일(목) 10:30, 삼산산 기독교인 정경 앞
27. 예디나12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212호
28. 예디나13 / 오는 구교모임 후, 사랑부실
29. 예디나15 / 오는 구교모임 후, 배다나를
30. 예디나16 / 18일(월) 10:00, 서울대공원
31. 루디아 2 / 18일(월) 10:30, 갈릴릴
32. 루디아 4 / 21일(목) 11:00, 이전에 집사대(3474-8194)
33. 루디아 5 / 19일(목) 10:30, 새가족부 교사실
34. 루디아 6 / 19일(목) 10:30, 올림파공원 북2문 주차장
35. 루디아 7 / 19일(목) 10:30, 올림파공원
36. 루디아10 / 19일(목) 10:30, 영락기도원
37. 루디아11 / 19일(목) 11:00, 비계로(충무로역 전) 3호선 한옥마을 정문(중앙병원 옆)
38. 루디아13 / 오는 구교모임 후, 교육관 311호
39. 루디아 1 / 19일(목) 10:30, 사랑부실
40. 루디아 2 / 19일(목) 10:30, 선동경 성도대
41. 루디아 3 / 19일(목) 11:00, 사랑부 교사실
42. 루디아 4 / 21일(목) 10:30, 만나를
43. 루디아 5 / 19일(목) 10:30, 선동경정부실
44. 루디아 7 / 19일(목) 10:30, 올림파공원
45. 루디아 8 / 19일(목) 11:00, 어린이대공원 구의문
46. 루디아 9 / 19일(목) 11:00, 임남향 집사대(495-8435)
47. 루디아11 / 오는 12:20, 유아부실
48. 루디아13 / 오는 10:30, 갈릴릴

◆ 줄 혼

1. 홍기준(홍국현 씨, 박순실 씨의 아들, 제19교구)과 차혜연(차재훈 씨, 전순주 씨의 딸) / 21일(목) 13:00 갈릴릴
2. 오규찬(오태희 장로, 이명자 권사의 아들, 제7교구)과 원영주(원학태 성도, 정숙옥 집사의 딸, 제19교구) / 22일(금) 12:30 갈릴릴
3. 서한용(서영창 성도, 이윤일 집사의 아들, 제5교구)과 손영희(손정일 씨, 천기옥 씨의 딸) / 23일(토) 13:00 복지관
4. 사정훈(사준환 씨의 아들)과 임시원(양충훈 성도, 전성자 성도의 딸, 제5교구) / 23일(토) 15:00 복지관

◆ 주수 및 회향반도 변경

1. 김일구 찬양감독, 김남옥 집사 / 강남구 역삼동 660-19, 전화: 554-9469
2. 최정호 안수집사, 김점주 권사 / 직장주소: 서대문구 홍제동 173-2 열린마국, 직장전화: 736-6658-9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888	정준예	4	소망부	양혜영(4)	906	강현정	4	청년부		924	박정연	19	대학부	
889	김정열	5	청년2부		907	정태희	7	루디아	박혜정(8)	925	김기연	19	청년1부	김민정(19)
890	백순연	6	청년2부		908	이정아	14	청년부	김광석(14)	926	김종철	19	예배다부	
891	이영실	6	청년2부		909	박정원	19	고동부		927	김종철	19	예배다부	박태진(16)
892	송세준	7	청년2부		910	오병환	19	오병환	김현준(6)	928	유현정	19	예배다부	박태진(16)
893	이병준	7	청년1부	강순금(6)	911	이현정	19	청년1부	고정민(19)	929	노지은	19	예배다부	박태진(16)
894	김상준	11	예배다부	정경민(8)	912	방정준	19	종동부		930	송종규	19	예배다부	박태진(16)
895	장정호	19	청년2부		913	이현우	19	대학부		931	김지혜	19	예배다부	박태진(16)
896	손선자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14	김지선	19	대학부	김지훈(12)	932	이동주	19	예배다부	박태진(16)
897	이석준	14	베드로		915	이혜빈	19	대학부		933	이대복	19	예배다부	박태진(16)
898	최정환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16	장정숙	19	대학부		934	김진규	19	예배다부	박태진(16)
899	김정형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17	한미영	19	대학부		935	정경호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00	박준경	19	예배다부	이종민(19)	918	김기성	19	대학부		936	이준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01	김재훈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19	유복민	19	대학부		937	민준하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02	양해홍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20	이성진	19	대학부		938	김성복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03	황성규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21	이성정	19	청년부		939	박재호	19	예배다부	박태진(16)
904	김범만	1	베드로		922	마은정	19	청년부		940	이태호	19	예배다부	
905	임정선	2	청년1부	김종록(2)	923	이명철	19	청년부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문예

나라와 겨레를 위한 기도

김 학 기(장로, 2교구)

- ▶ 이 나라의 모든 공무원들에게 소명의식을 갖도록 성령님께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 ▶ 이 나라의 모든 부급 생활자들이 자기의 부급 이외에 다른 불로소득에 탐심을 품는 시험에 들어 패망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도와 주소서.
- ▶ 풍나물 한뿌리, 두루 한도, 들끓임 하나, 삼수 한 일, 그 어느 것에도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되어 나가야 하고, 인간간의 악한 지나친 탐욕에서 말미암은 어떠한 잔과나 잔재주도 짓들지 말아야 우리 대한민국이 창대하여진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가 깨닫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 ▶ 우리 겨레에게 절필하고 필요한 것은 경제 위기 회복 이전에 정치적 성숙성 있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을 존중하여 철저히 지켜나가기 합의를 성령님께서 지혜를 4천 5백만 모듬에게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 드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조국의 남북통일을 이루어 낼 수 있는 대한민국 백성으로 거듭나는 부활의 새 날을 허락하여 주소서.

5월 24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 2부예배

비리온 서준성(오르간 / 김남옥)

(찬양감독)

· 예수 나의 구주 삼고(한 204장) · 살아 계신 주

·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한 465장) · 주기도문

◆ 3부예배

바이올린 김유정, 첼로 조준경

(파이노 / 노홍진)

(찬양감독)

· 내 본향가는 길(한 202장) · 거룩하시나 하나님

·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한 453장) · 기도

· 나 열매를 늘 위해(한 523장)

◆ 4부예배

비리온 김일구(파이노 / 김남옥)

(찬양감독)

· 주 예수 내 의지(한 99장) · 후일에 생명의(한 205장)

· 주의 복음 주의 백성에게 · 내가 행하는 만 길

◆ 5부예배

소프라노 정동호(파이노 / 김경아)

(찬양감독)

· 주께로 찬양(한 323장) · 자비의 주여

· 은혜의 주님의 음성(한 319장)

금주의 기도 제목

1. 김창원 원로목사와 김성관 위임목사께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며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이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2. 각 구역예배 및 남성주요예배, 구역장준원들이 복음을 새롭게 깨닫고 힘있게 일하시는 아름다운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3. 각 예배순서와 기도와 회교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 하소서.
4.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회교에 전도와 선교의 열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전도와 선교의 대열에 열심히 참여 하소서.
5. 새가족교회와 금요교회와 주일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하게 하소서.
6. 교회학교예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찬양하게 하고 성령의 모든 교사를 위해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소서.
7. 충현의 모든 성도들이 주일을 성수하며 생활 중에서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몸이 아닌 성도들을 믿음중에 강건케 하시기 치료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소서.

■ 원로목사

김창원

김성관

■ 위임목사

김성관

■ 부목사

이홍성 김희수 이종대 박경한 김점주 김철수 권영준 김재철 이종수 장갑진 정병민 조복환 조철수 김동하 차준환 김병태 김진식 권상현 서광진 이송하 정해성

■ 협동목사

윤영택 박형용 노봉민

■ 선교사

이은교

■ 김점주

이은정 박노철

■ 원로전도사

이두란

■ 여전도사

최복희 정연희 현정남 정복진 장영자 임창주 김정자 배옥인 최희재 손희희 송창자 신동자 배순진 오정숙 오인숙 김옥순 현정준 박종하 박희자 김점주 김점주 최정환

■ 교구전도사

박태진

■ 교구전도사

박성기 열현일 한승일 이종환 김영기 송원식 김강종 조재만 최진우 허규구 이은진

■ 원로전도사

장성기 정은희 박태양

■ 원로전도사

유병재 김형선 이기성 김철영 고은빈

기도원 · 동산 관리자 모집

하나님의 물결 교회를 섬기며 충현기도원 및 충현동산에서 일할 성실한 직원을 모집합니다.

1. 자격

본 교회에 출석하는 세례를 받은 55세 미만의 남자

2. 근무직

충현기도원 관리직 · 0명
충현동산 관리직 · 0명

3.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사진 포함)
(2) 주민등록등본

※ 기타 서류는 채용 후 제출

4. 제출 및 문의: 충현교회 사무국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교한 402)